

청년들과 꿈을 만들어갈 사업장 찾습니다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25일까지 250여곳 모집
5개월간 직무·역량 강화

광주시가 2019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직무 현장을 제공할 사업장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공공기관형, 공익활동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창업기업형 등 유형은 모두 6가지로, 이에 맞는 사업장을 제공할 기관·단체 등이 대상이다. 시는 22일 “참여 사업장은 250여 곳을

25일까지 모집해 청년 500명에게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장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을 함께 하게 된다. 시는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지원사업 종료 후 직접 채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해 2년 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4개 기수가 운영되면서 총 1000여

명의 지역청년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무현장과 연계되도록 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6개 유형에 250곳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고유한 직무를 청년과 함께 수행하면서 청년의 역량 강화를 돕고, 각 사업장의 비전과 적성이 맞는 청년은 직접 채용으로 이어지게 했다. 특히 참여사업장을 미리 발굴·선정해 청년에게 사업장 정보와 직무를 미리 제공하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 구인·구직 미스매

치를 줄였다. 점에서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청년드림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결과 참여사업장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률 120곳 중 7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0.9%에 그쳤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장 내 기존 직원과 청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칭 성과를 키우고, 모범 사업장을 적극 발굴·소개해 지역사회에 청년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행안부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

‘가’ 등급 광주 자치구중 유일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안부 등이 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관과 민원 처리성과 등 3개 부문 21개 지표를 놓고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실시됐다. 광산구는 304개 기관 중 상위 10%에 속하

는 등급을 받아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가’ 등급을 받은 곳은 광산구가 유일하다. 광산구는 민원행정 관리기관 부문 중 기관장의 의지·관심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만점을 받았고,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과 민원행정·제도 개선 항목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잘 추진했다고 주는 상이기에 기쁘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과 민원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출산 다문화가정 친정 엄마 대신 모국 산모도우미 파견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엄마를 대신해 출산국 산모도우미가 파견된다. 광주시는 22일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과정과 이주여성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출산국 산모도우미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도우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여성에게는 친정국가의 산모도우미를 통해 신생아 건강관리 등 육아정보 제공, 산전후 우울증 극복, 가족 간 문화차이 극복 등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자는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며, 소정의 양성 교육을 거쳐 출산국 다문화가정에 파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한국 거주 3년, 자녀 출산 후 1년,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갖춘 결혼이주여성과 고려인주민 여성이다. 출산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렵고, 정서와 문화 차이 등으로 보건소의 산모도우미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출산국 산모도우미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다문화가정은 수시로 모집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광주시 사회복지과(613-3242),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63-2963)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장애인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품 전달
광주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희망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추진됐으며, 물티슈 등 생활용품과 간식 등을 지원했다.

15개 성수품 중점...설 물가 특별관리

20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월 8일까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경제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협중앙회, 민간 소비자단체 등 20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 기관별 추진계획 공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물가안정대책 기간에는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축임수산물 1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물가조사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을 설치하고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설 성수품 및 주요 생필품의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매점매석과 개인서비스요금 담합 행위 등 불공정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는 각 소비자단체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점검, 폭리 행위 방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되며, 개인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는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고 2018년 12월말까지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익사업 접수는 22일부터 2월1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유형은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보호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여성청년 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안전도시구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호남관상생협력과 국제협력 등 7개 유형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관부서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제1기 예산참여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만 19세 ~ 만 39세 20명
광주시 북구는 “오는 29일까지 청년정책 예산편성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1기 예산참여청년위원회 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운영하는 ‘예산참여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예산편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예산·결산 등에 의견 제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등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까지인 청년으로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내려 받아 북구청 기획조정실, 북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기획조정실 우편접수 또는 팩스(062-510-1473) 및 이메일(osia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1월 31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2-410-6054.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책자 발간

의료폐기물 관리도 대폭 강화
광주시 서구가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홍보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은 매년 의료폐기물의 증가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위해 준비했다. 서구는 이번 지침배포와 함께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과 혼합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사업장 종사자가 의료폐기물 분류방법에 대해 명확히 숙지토록 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안전 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향후 배출사업장 스스로 폐기물 적법처리와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스스로 점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 보다 효과적인 의료폐기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3억. 일시불 조정가
- 문의 - 010.3605.5000

